

제6강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(6)

(1교시)



- ▶ 12고원에서의 유목론을 미학적으로 보완.
- ▶ “서구의 예술은 대체적으로 흠 패임의 예술이고,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을 폄하해 왔다. 그러나 유목민 예술은 매끄러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다.” 를 이론적으로 설명.

▷ 거리의 문제

흠 패인 공간의 미학

- 전체 구도를 먼저 잡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운다. (예, 직선을 그리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움. 캔버스의 틀을 중시. 원근법.)
- 원거리를 전제.

매끄러운 공간의 미학

- 전체 틀 없이 바로 그려 나간다. 열린 상태에서 만들어 나감. (예, 패치워크, 퀼트)
- 가까운 거리에 주목.
- 구도보다 **강도(intensity)**가 중요.
- ⇒ 유목 예술은 전체적 구도가 아닌 **움직임과 강도**를, 긴 기억이 아닌 **짧은 기억**을 표현한다.

▷ 매끄러운 공간에서의 예술

“접속들은 다양체를 흡수하고 거리에 불변성을 부여하는 주변 공간을 내포하지 않는다. 반대로 동일한 거리가 분할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질서 잡힌 차이에 따라 구성된다.”

- 차이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. 그러나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다.
- 뛰어난 예술은 **카오스모스(chaosmos)**한 것. 즉, 형태나 배치의 동일성이 아니라 예술가 특유의 강도가 존재하는 것이다. (예, **잭슨 폴락**. “내 그림에는 우연이 없다.”)

사진8 잭슨 폴락, <연보랏빛 안개>

추상회화의 두 길 : 형태를 추상하는 것과 기(氣)로 추상하는 것.

바슐라르, 형식적 상상력과 물질적 상상력의 구분

사진9 칸딘스키, <원속의 원> / 몬드리안, <황,적,청과 흑의 구성>

- 형식적 상상력 : 플라토니즘을 전제한 서구의 기하학적 상상력. (칸딘스키, 몬드리안)
- 물질적 상상력 : 물질이 형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. (추상기계란, 형태를 극복하는 유연한 기계. 사람의 마음은 완벽한 추상기계이다.)

(2교시)

⇒ 들뢰즈, 가타리가 말하는 추상이란, 바로 ‘물질적 상상력’을 뜻한다. 들뢰즈는 오히려 중세의 미술이나 건축이 근대의 그것보다 매끄러운 예술이라 여겼다. (예, 모자이크, 스테인드 글라스/바로크, 고딕 양식)

⇒ **빌플린** : 바로크, 고딕 양식의 기괴함을 발견한 스위스의 미술사가. 들뢰즈가 『주름』이란 책을 통해 다루고 있다.

▷ 동북아 예술과 유목 예술

동북아 예술의 특징 : 직선이 거의 없다. 구성, 형식이 아닌 강도(기)를 중시.

⇒ 매끄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목 예술과 통한다.

글과 그림의 관계 : 글 자체가 흠을 파는 것. 글을 배우면 그림을 못 그리게 된다.

⇒ 유목민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.

베르그송의 언어 비판.

- “언어는 인간을 사유케 했으나, 역사에서 그것은 강도(intensity)를 놓쳐 버리게 했다.”

- 기호가 발달하면서 사물과의 공감이 상실됨.

- 본능과 지능이 통합될 때 베르그송적 ‘직관’이 성립

⇒ 베르그송적 직관이란, 지능을 이미 소화하되 그 지능을 넘어 잃었던 본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.